



맥도날드 26Q3 Preview MCD · NYSE

미국 동일점포 고객 수 증가 전환 여부가 관건, 투자의견 중립 유지

2026. 10. 26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투자의견

중립

확신도 중간 · 유지 (8/4)

현재주가(10/23) **\$248.46**
 목표주가(컨센서스 평균) **\$297.03**
 상승여력 **+19.5%**

Key Data

시가총액 1,758억 달러
 52주 최고 / 최저 \$341.06 / \$230.88
 12개월 선행 P/E 18.3배
 목표주가 범위 \$245 ~ \$390
 티커 MCD · NYSE
 업종 임의소비재 · 호텔, 레스토랑, 레저

주가 수익률

	1M	3M	12M
절대(%)	+4.8	-8.2	-19.9
S&P 대비(%p)	+5.9	-11.0	-33.7

주가 추이(1년, 시작=100)**컨센서스(I/B/E/S)**

억 달러	FY25	FY26E	FY27E
매출	269	282	289
영업이익	126	133	140
순이익	87	91	97
EPS(달러)	12.20	12.87	13.75
P/E(배)	25.6	19.3	18.1

자료: LSEG, I/B/E/S, FactSet, 주가는 10/23 종가.
 투자의견은 대신증권 AI 하우스 뷰

핵심 요약

- 11월 4일 발표의 초점은 손익이 아니라 미국 트래픽이다. 맥도날드는 11월 4일 26Q3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며, 시장이 가장 먼저 확인할 숫자는 매출이나 주당순이익이 아니라 미국 동일점포 고객 수다.
- 컨센서스는 +4.7% 성장을 반영하고 있으나 하단 착지 가능성이 높다. 26Q3 컨센서스는 매출 74.09억 달러, 조정 주당순이익 3.423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7% 성장을 반영하고 있어, 7월 출발점을 감안하면 눈높이가 다소 높다.
- 밸류에이션은 5년 평균 대비 18% 할인이나 재평가 방아쇠가 없다. 선행 PER 19.51배는 5년 평균 23.7배 대비 약 18% 할인 수준으로, 할인 폭은 3개 분기 연속 축소됐다.
- 미국 밖에서는 플러스가 유지되고 있으나 중국·프랑스가 변수다. 지역 믹스로 보면 미국 밖 사업이 성장을 떠받치는 구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 상회해도 고객 수 플러스가 아니면 멀티플 회복은 제한적이다. 결국 이번 분기는 숫자의 상회·하회보다 미국 고객 수의 부호가 주가를 가를 전망이다.

11월 4일 발표의 초점은 손익이 아니라 미국 트래픽이다

맥도날드는 11월 4일 26Q3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며, 시장이 가장 먼저 확인할 숫자는 매출이나 주당순이익이 아니라 미국 동일점포 고객 수다. 직전 2분기 미국 동일점포 매출은 +0.8%로 성장률 자체는 플러스를 유지했으나, 회사는 이 성장이 우호적 제품 믹스를 포함한 객단가에서 나왔고 동일점포 고객 수는 마이너스였다고 명시했다. 전 세계 4만여 개 매장 중 90% 이상을 가맹점이 운영하는 구조인 만큼, 객단가에 의존한 성장은 가격 대비 가치 인식 훼손과 가맹점 수익성 부담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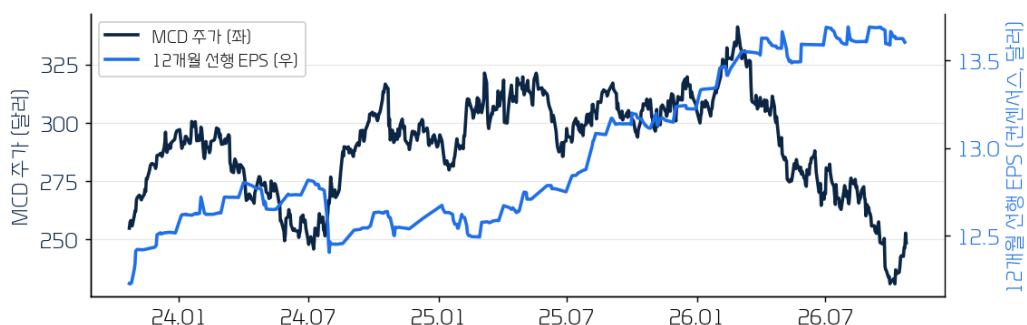
경영진이 2분기 콜에서 7월 미국 동일점포 매출이 소폭 마이너스라고 밝힌 점이 이번 분기 눈높이를 끌어내린 배경이다. 같은 콜에서 2분기 실행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고, 대응은 재무 가이드스 조정이 아니라 인사로 나왔다. 스카이 앤더슨이 맥도날드 USA 사장으로 선임되고 조 얼링거는 회사를 떠났다. 최대 시장 책임자의 교체와 퇴사는 통상적인 순환 인사보다 강한 신호이며, 회사가 미국 실행 부진을 공식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컨센서스는 +4.7% 성장을 반영하고 있으나 하단 착지 가능성이 높다

26Q3 컨센서스는 매출 74.09억 달러, 조정 주당순이익 3.423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7% 성장을 반영하고 있어, 7월 출발점을 감안하면 눈높이가 다소 높다. 비교 기저인 25Q3 실적은 매출 70.78억 달러, 조정 주당순이익 3.22달러이며, 직전 2분기 매출이 컨센서스를 -0.4% 하회한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JAEMINI는 매출 72.00~74.20억 달러, 조정 주당순이익 3.28~3.45달러 구간을 상정하고 있어 실적이 컨센서스 하단 근처에 머물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

셀사이드 눈높이도 9월 말부터 10월까지 일제히 내려왔다. Citigroup · Bernstein · Wells Fargo · Morgan Stanley · BMO · JPMorgan이 연달아 목표주가를 하향했고 상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Bernstein은 295달러에서 250달러로 가장 큰 폭으로 조정했다. 목표주가가 이미 하향 조정된 상태에서 실적 발표를 맞는 만큼, 숫자가 컨센서스 하단에 머물러도 주가 반응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림 1 맥도날드 주가와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 추이



자료: LSEG (주가 · I/B/E/S 12개월 선행 EPS 컨센서스) ·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밸류에이션은 5년 평균 대비 18% 할인이나 재평가 방아쇠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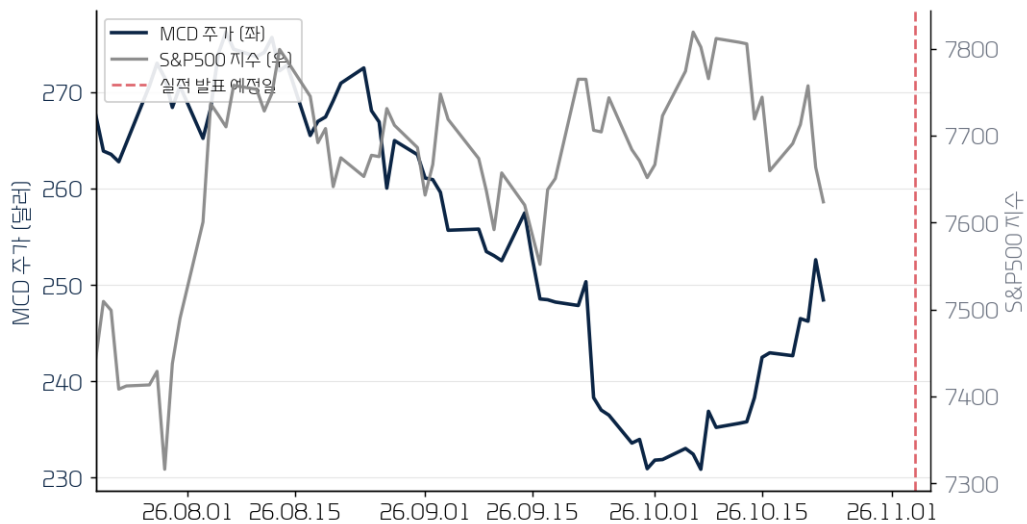
선행 PER 19.51배는 5년 평균 23.7배 대비 약 18% 할인 수준으로, 할인 폭은 3개 분기 연속 축소됐다. EV/EBITDA 14.17배 역시 5년 평균을 밑돈다.

주가는 연초 이후 -13.22%, 최근 1개월 섹터 대비 -9.96%p 열위를 기록하며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다만 미국 고객 수가 마이너스에 머무는 동안에는 멀티플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분기 고객 수가 재평가의 계기가 될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옵션시장이 반영한 예상 변동폭은 ±5.5%다. 30일 내재변동성은 25.78%, 25델타 스큐는 14.75로 집계됐다.

포지셔닝이 한쪽으로 몰려 있지 않은 구간인 만큼 숫자 자체보다 콜에서 나오는 미국 전략 설명이 주가 방향을 좌우할 전망이다. 풋/콜 거래량 비율은 0.61로 2분기 발표 당시 6.33에서 크게 내려와 하방 헤지 쏠림은 진정된 상태이나, 스큐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은 하방 옵션에 여전히 프리미엄이 붙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 맥도날드 주가 vs S&P500 — 발표 전 약 9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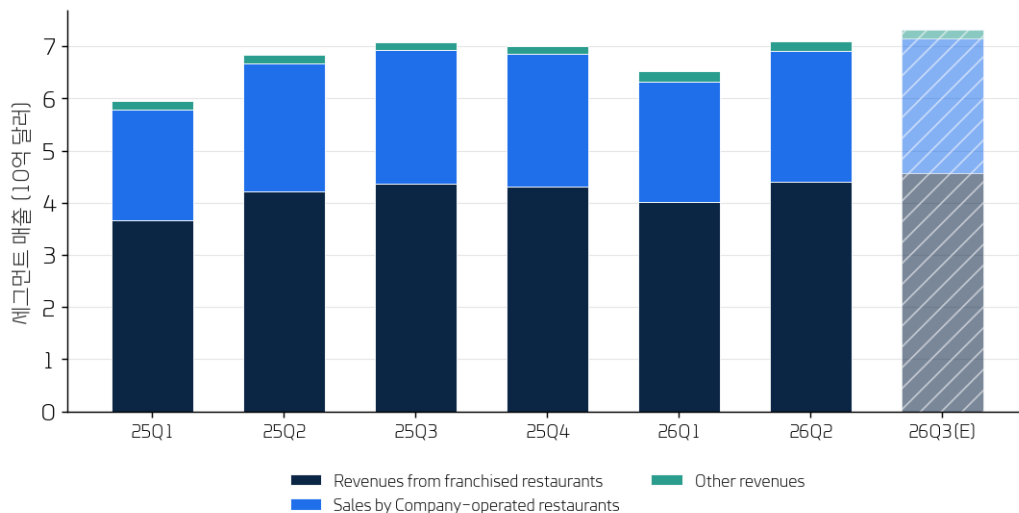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밖에서는 플러스가 유지되고 있으나 중국·프랑스가 변수다

지역 믹스로 보면 미국 밖 사업이 성장을 떠받치는 구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2분기에는 IOM 세그먼트에서 독일·호주·영국, IDL 세그먼트에서 일본이 동일점포 매출을 견인하며 전 세그먼트가 플러스를 유지했고, 달러 약세에 따른 환율 효과가 약 2%p 기여해 매출 +4% 중 고정환율 기준 성장은 +2%였다. 다만 프랑스의 마이너스 동일점포 매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마이너스가 새로 부각된 만큼, 두 시장의 개선 또는 심화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맥도날드 세그먼트 매출 구성(사업부/지역)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트래픽 부진을 방어하는 요인은 로열티 프로그램이다. 70개 시장 로열티 회원의 시스템와이드 매출은 최근 12개월 +20% 이상 증가해 400억 달러에 도달했다. 90일 활성 사용자도 +13% 늘어 약 2.2억 명을 기록했다.

로열티 회원 매출과 활성 사용자의 확장세가 이어진다면 미국 트래픽 부진 구간에서도 객단가 방어 논리를 지지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상회해도 고객 수 플러스가 아니면 멀티플 회복은 제한적이다

결국 이번 분기는 숫자의 상회·하회보다 미국 고객 수의 부호가 주가를 가를 전망이다. 매출이 컨센서스 74.09억 달러를 넘고 미국 고객 수가 플러스로 반전한다면 18% 할인 상태인 멀티플이 회복될 여지가 있으며, 매출이 72억 달러대에 머물고 고객 수도 보험권에 그치면 신임 미국 사장 체제의 과도기 분기로 소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프랑스 동일점포 매출의 마이너스가 심화되거나, 2분기 증익을 떠받친 기타영업손익 66억 달러 규모의 변동이 재현되지 않아 영업이익률이 추가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7년 말까지 5만 개 매장 목표가 2028년으로 1년 이연되고 자본지출 방향성이 상향에서 유지, 축소로 내려온 흐름도 함께 점검할 사안이다. 단기 현금흐름에는 우호적이나 소비 둔화와 개발비 인플레이션이 이연 사유로 제시된 만큼 출점을 통한 성장 일정이 뒤로 밀린 것으로 해석되며, AI 기반 메뉴 가격결정을 둘러싼 집단소송이 새로 제기된 점도 가격 대비 가치 인식 측면에서 부담 요인이다. 발표를 앞둔 현재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한다(확신도 중간).

한눈에 보는 관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	시장 눈높이(컨센서스)	회사 가이드런스	우리가 보는 초점
매출	74.09억 달러(전년 대비 +4.7%)	숫자 가이드런스 미제시	72.00~74.20억 달러 상정, 컨센서스 하단 착지 가능성
조정 주당순이익	3.423달러(25Q3 3.22달러)	미제시	3.28~3.45달러, 환율 순풍과 자사주 매입 기여 여부
미국 동일점포 매출·고객 수	보험권 기대	7월 소폭 마이너스 언급	고객 수 마이너스 탈출 여부가 최대 변수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33.7억 달러 수준	2026년 40%대 중후반	기타영업손익 스윙 없이 47%대 방어 가능한지
자본지출·출점	—	2026년 자본지출 37~39억 달러, 총 오픈 약 2,600개	5만 개 목표 2028년 이연 이후 집행 진도
신임 미국 사장 전략	반영 미미	공개 예정	3분기 내 실적 반영인지 2027년 계획인지

※ 투자의견 체계 — 적극 매수 > 매수 > 중립 > 비중축소 > 매도 5단계. 하우스 뷰의 방향(강세·중립·약세)과 확신도(높음·중간·낮음)를 결합해 부여하며, 목표주가 대비 기대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등급이 아니다. 상향·유지·하향은 같은 종목 직전 발간물의 등급과 비교한 결과다.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